

日

2007-11-21 22:42:13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정책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기업 비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기업이 가족 기업인지여부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이날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주최로 열린 `한국 재벌의 어제와 오늘-삼성' 주제의 특강에서 "많은 기업의 비리 사건들이 가족경영 기업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기업이 아닌 경영자 기업에서도 비리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리 사건의 근본 원인은 그 기업이 가족경영 기업이나 경영자 기업이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과거의 여러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지 긴장감과 위기 의식을 가지고 경영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기업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꼽으며 "가족기업은 구심력이있어서 경쟁력이 크다.

기업이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있으면 빠른 환경 변화에 빠른대응이 필요할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병철 회장에 대해 "강한 국가의식과 합리성의 추구를 특징적인 경영 이념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으며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이전의 양(糧) 중심에서 질(質) 중심의 경영을 통해 고도 첨단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비자금 조성 등 삼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벌이라는 가족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서는 안되고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에서는 경영권을 검증하지 않고 억지로 회사를 물려줘서 문제가 된 기업들이 많은데 삼성이 일본의 실패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